

“당구장의 ‘로미오’ 신선하지 않나요”

광주시립발레단·문화전당 공동제작 ‘로미오와 줄리엣’ 준비하는 재독안무가 허용순

세계적 발레리나서 안무가 변신 첫 전막 클래식에 모던 요소 가미 새 작품 만들어
구윤지·보그단·김주원 타이틀롤 맡아
지난해 겨울부터 단원들과 연습 구슬땀
7·8일 아시아문화전당 극장1 공연



오는 7일과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타이틀롤을 맡은 광주시립발레단의 구윤지와 보그단 플로피뉴.

독악을 먹고 죽음에 이른 줄리엣을 발견한 로미오.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듯,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하던 그는 줄리엣을 꺼안고 절규한다. 애절한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은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광주시립발레단 연습실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응시하던 안무가 허용순(54·독일 뒤셀도르프 발레단 지도위원 겸 발레학교 교수)은 무용수들과 동시에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함께하는 ‘일심동체’의 모습이었다. 연습 후 직접 단원들에게 동작을 선보이고 이날 녹화한 영상을 함께 보며 “몸이, 근육이 움직임을 기억할 정도로 연습해야 한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광주시립발레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동제작한 ‘로미오와 줄리엣’(7일 오후 7시30분·8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1) 연습 현장은 열기가 가득했다.

인터뷰에서 만난 허씨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다. 단원들에 대한 애정이 넘쳐났고, ‘말바보’라며 오페라 등에 출연하는 14살 딸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그녀의 인터뷰는 즐거웠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2008년 독일 슈베린 컴퍼니에서 초연된 후 대대적인 개작을 거쳐 2014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발레단에서 재공연된 작품이다. 또 전 세계 발레단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스타 발레리나’에서 안무가로 변신한 그녀의 첫 ‘전막 안무 작품’이기도하다.

“제가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저 아름다운 음악에 안무를 하면 얼마나 멋진 작품이 나올까 생각했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워낙 유명한 안무가들의 버전이 많아 긴장도 됐지만 과감히 도전했어요. 대신 색깔을 독특하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클래식과 모던의 결합이었다. 작품의 첫 장면 ‘당구장’신이 상징적이다. “정통적인 클래식 버전에 현대적 요소를 넣어 최대한 현재의 우리에게 가까운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전통적인 마음 대신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택했고, 안무도 현대적 동작을 많이 넣었습니다. 가슴 아린 사랑도 있고, 유머도 있고 관객들이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빠져드는 작품입니다.”

독일의 베레나 헤머라인이 맡은 의상과 무대 디자인 역시 현대적이다. 연습실에 걸려 있던, 독일에서 공수해온 의상 중에는 미니스커트도 눈에 띄었다.

작품의 타이틀롤은 발레단의 구윤지와 보그단 플로피뉴, 초청무용수 김주원이 맡았다. 여기에 오윤환, 송관석, 전혜윤, 김정희, 김희준, 김주현, 신승현, 조재욱, 전진미, 김진경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제 작품이 에너지가 강해서 무용수들이 힘들어하곤 해요. 윤지는 받아들이는 게 무척 빨라요. 윤지에게 보그단의 눈에 빠져 들어야한다. 같이 느껴야한다고 강조했죠. 보그단은 로미오로는 좀 어린 나이가기는한데 카멜레온 같아요. 주역도 중요하지만 앙상블이 정말 중요 합니다. 조용히 작품을 빛내는 이들이지요. 무대 스텝에게서 이번 캐릭터들의 밸런스가 좋다는 말을 들어 기분이 좋아요.”

2019년까지 일정이 짜인 그녀가 발레단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여름이었다. 제안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 ‘무용수’들을 보고 싶었다.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끄집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서다. 당시 ‘가능성’을 봤고 겨울부터 클래식과 안무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단원들과 연습하며 제 이야기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걸 봤어요. 함께 춤 흘리며 단원들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다고 판단했고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번에 50여일만에 다시 만났지만 꼭 2~3일 만에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전 언제나 무용수들 편이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제 작품의 얼굴이 바로 무용수고, 내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니까요. 무용수들이 즐거워야해요.”

그녀는 선화예고 재학중 모나코 왕립발레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문훈숙 단장이 동기, 국립발레단장 강수진이 2년 후배다. 졸업 전 한달 짜리 기차표를 끊고 유럽 곳곳에서 오디션을 보겠다는 각오였는데 첫 단체인 프랑크푸르트발레단에 합격, ‘백조의 호수’ 4마리 백조로 데뷔했다. 남편도 발레가 매력적인 연인이다. 바젤발레단에서 ‘스파르타쿠스’ 주역을 맡았을 때 상대 발레리나가 부상을 입었고 대체 투입된 이가 바로 남편 유육 시몬이다. 그는 현재 뒤셀도르프발레단에서 행정을 맡고 있다.

그녀가 ‘내 인생의 작품’으로 꼽는 건 동양인으로 첫 주역을 맡았던 마츠 에크의 ‘카르멘’이다. 당시 그가 가르쳐준 ‘솔직하게 춤을 추라’는 조언은 그녀의 좌우명이 됐고, 후에 무용수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허씨는 발레단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스타일의 작품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밤 먹을 때 이것 저것 반찬 먹는 것처럼 여러 장르의 춤을 추는 게 중요해요. 다른 스타일의 안무가가 오면 무얼 배울 수 있을까 언제나 기대되고 흥분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 무용수들에게 배우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해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해요.”

허씨는 60명 단원에 5명의 발레마스터가 근무하는 뒤셀도르프발레단 사례를 들며 클래식 역시 다양한 지도자에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연을 보면서 발레단에 자부심을 가지실 거라 믿어요. 무용수들이 쓰러질 것처럼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작품입니다. 리허설을 지켜보면서 가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내가 울면 됐다(웃음)실조.”

티켓 5만원, 3만원, 1만원. www.acc.go.kr.1899-5566. 062-522-8716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4월호



문화와 빛이 흐르는 ‘미디어아트 광주’ ‘동양의 파바로티’ 신안 출신 조용갑 인생 이야기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된 후 2년이 흘렀다. 광주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4월호를 특집 ‘빛고을, 미디어아트를 켜다’를 주제로 문화와 빛이 흐르는 미디어아트 도시를 소개한다. 광주문화재단이 개관한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직접 둘러보고 이이남·진시영·손봉채 등 광주·전남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동양의 파바로티’ 테너 조용갑을 만나본다. 국도 최 서남단 신안 가거도의 가난한 청소년에서 형그리 복서로, 다시 테너로 변신해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300여 차례 주역을 맡아 활약한 조용갑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엿들었다.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 ‘남도’는 항구다’가 여섯 번째 찾아가 곳은 해양도시 여수의 상징 국동항. 한려수도 여수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국동항을 찾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했다.

이어 대한민국 식품명인 35호 기순도 명인을 찾아가 360년 종가의 맛을 이어가는 비법을 배워본다. ‘예향이 만난 이사람’은 포수 동반 10훈려 기록을 가진 KIA타이거즈 안방마님 이흥구 선수와 코카콜라 애장품을 기증해 코카콜라를 탄생시킨 콜레터 김용

은씨를 소개한다. 김진수 사진기자가 영·호남합동원 정동번대원들과 함께 떠난 동계훈련 동행 르포도 볼거려다. 일본 야츠카다케 산군을 오르는 이들과 함께 하마그들이 왜 산에 오르려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예향’과 함께하는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키덜트들의 레고홀릭 세상으로 들어가 본다.

봄이면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여행 소식도 풍성하다. ‘남도 미미락’에서는 함평의 맛과 멋과 흥을 찾아 떠나는 ‘남도 시간 속을 걷다’는 벗꽃이 만개한 1930년생 무인 간이역, 보성 명봉역을 찾아가는.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가는 ‘이제는 문화시민이다’에서는 미술애호가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로망의 도시 파리의 오르세미술관을, 여행 칼럼니스트 노충훈의 ‘꿈의 여행’ 여정은 이집트의 고대문명 불가사의 속으로 들어간다.

이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에너지 여행’ 영광 한빛원자력본부를 소개하고 창립 25주년 동인지 30호를 발간한 ‘시와 산문’ 동인, 문화평론가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대중문화사의 역할과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신나조각
아프리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광명전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